

오르비**1타 같은 N타****EBS 수능 특강 Zola Guide****[주의]**

1. ebs 교재 내용에도 오류나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음. 따라서 ebs 오류 및 수정 공지를 ebs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볼 것.
2. 오답을 정답으로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 것.
3. 문제의 경우 ‘제시문’과 ‘해설’ 까지 확인할 것.

<구성>

1. 개념·자료 체크 point
2. 문제 체크 point
3. 출제 주제 목록
4. 4개년 퀄리·통수 문제 목록

1. 개념 부분*** 보는 법 : 숫자(쪽수): Zola Guide**

- 12: 위의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덕윤리’ 사상 정리 할 때 같이 볼 것.
- 12: 중간의 자료 플러스. 밀의 자유론 확인. 별도로 내용 정리해 두면 좋음. 여기 저기 출제됨(국가관, 정보윤리 등등).
- 19~24: 자료 플러스는 모두 확인할 것. 제시문과 해설 잘 봐두셈.

[Zola] 생윤 윤리 도가 제시문 독해법

<https://www.youtube.com/watch?v=YrSxydHfHD8>

- 32: 아래 자료 플러스. 죽음에 대한 불교 관점 제시문 처음 보는 제시문임. 불교의 핵심어인 ‘집착’에 집중해서 독해할 것.
- 45~46: 자료 플러스. 자연과 윤리(11강)와 정리할 때 하면 됨. 동물 실험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면 님은 시간 낭비 하는 것임.
- 53: 자료 플러스. 프롬의 ‘사랑의 기술’ 눈팅 해 둘 것. 가끔 나오는데, 정답률이 60%대까지 떨어짐.
- 55: 자료 플러스. 배려 윤리 확인. 정의 윤리-배려 윤리 구분할 것. 길리건과 나딩스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듯.
- 56: 가족 윤리가 나올 때가 되었음. 이 부분은 전통 윤리 특히 유가 윤리여서 지식이 있어야 함. 내용 정리 잘 해 둘 것.
- 62: 자료 플러스. 순자. 유가임. 성악설임. ‘예’가 중요함.
- 63: 자료 플러스. 플라톤의 직업관은 정의관이나 국가관과도 연결 됨.
- 64: 아래 개념 플러스. ‘사회적 자본’ 기출로 출제된 적이 있음. 눈팅은 하되 독해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72: 자료 플러스. 니부어는 준비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73: 자료 플러스 2개 모두. ‘정의’라는 공통 주제로 묶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알아야 함. 맹자는 직업관 지식으로 충분할 듯.

75: 롤스는 당연. 왈처도 알아두셈.

76~77. 자료 플러스. 처벌(사형)에 대한 사상가의 입장은 당연히 필수 확인 사항임.

Zola 암기 point: <사상가-개념-사형에 대한 입장>을 외워두면 세 세한 지식은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머리 굴려서 추론 가능함.

85.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확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목적론, 덕윤리、중용 확인해 둘 것.

86. 자료 플러스. 맹자의 왕도 정치보다는 유가의 대동 사회를 알 아두는 것이 좋음. 왕도와 패도의 단어 의미 확인.

86~87. 홉스-로크-루소(호로루)의 사회계약론 확인. 단, 처음부터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하지 말 것. 사회 계약론의 기본 이론 구조 (계약전→계약→계약후) 활용할 줄 알아야 공부가 편해짐.

☞ Zola Guide 서양 국가관은 4개 개념을 사상가와 함께 정리해 두면 쉽게 풀리는 것들이 많음. 개념 없이 사상가 바로 정리하면 나중에 공부량이 늘수록 복잡해지고 꼬이기 쉬움. 금성 출판사 생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좋음. ebs는 내용이 지저분함.

87. 아래 자료 플러스. ‘밀의 자유론’ 앞에서도 언급한 자료가 있음. 함께 확인할 것.

89. 자료 플러스. 롤스 입장을 확실하게 외워둘 것. 그러면 나머지 사상가는 대충 풀어도 답이 나옴.

97. 자료 플러스.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입장 정리보다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의 개념 공부를 먼저하는 것이 우선임.

99. 자료 플러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 나름 필수 사상가임. Zola는 배려 윤리, 책임 윤리 모두 주제 1-3[서양 윤리 이론]에서 정리했음.

116~119. 서양의 환경 윤리 이론은 님들이 알아서 할 것. 드릴 말씀이 없음. 바나나 제거 특강 꼭 듣길 진심 조언함.

[무료] Zola 생윤 O - 바나나 제거
특강 [완강](#)

<https://class.orbi.kr/course/2050>



[Zola] 23-10모 -11번 자연윤리-ㄱ 바나나 풀이-한시적 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FdfkkaYYU5Q>

120. 자료 플러스. 동양 사상은 유기체론적 입장이어서 자연관과 인간관(윤리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Zola는 주제 번호 1-2(ebs 수특 2강)에서 한꺼번에 처리했음. 유기체론에 대한 설명은 앞서 언급한 자료 책 샘플 파일에 교과서 자료가 실려 있으니 참고할 것.
132. 위 자료 플러스. 칸트의 예술관은 지식임. 단 칸트의 의무론을 활용하면 쉽게 풀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의무론 지식을 활용하는지 얘기해 줬음. 제시문 잘 봐둘 것. 님들 옛 먹이려면 엄청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만들 수 있는 제시문임...ㅋㅋ
132. 아래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은 이전에도 언급되었음. 지식이 아니라 독해라고 보면 됨.
- 145: 자료플러스: 엘리아데의 종교관은 지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음. 정답률 60% 정도까지 떨어졌음.
- 154: 자료플러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확인! (1) 밀의 자유론과 헷갈리는 분들도 있음. 밀의 자유론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음. 공부가 좀 부족함! (2) 그리고 칸트의 도덕 법칙과 헷갈리는 분들도 있음. 보편화 가능성, 법칙성, 타당성 이런 것들은 칸트와 하버마스의 구분 point가 아님.
- 163: 자료플러스: 현실주의 이상주의 비교 확인. 단, 이상주의가 워낙 두리뭉실한 이론이라 너무 세세하게 따질 필요는 없음.
- 164: 자료플러스: 갈퉁의 평화론도 칸트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지식이 필요함!
- 165: 자료플러스: 칸트 영구 평화론은 꽤 자세하게 물어 봄. 수특 내용만으로는 부족함.
- 167: 자료 플러스+오른쪽 날개단: 롤스의 해외 원조에 등장하는 기본 용어들의 의미가 서술되어 있음. 그런데 ebs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님들을 가르치는 샘들의 자료와 필기를 꼭 백지 복습할 것. 롤스는 용어가 상당히 롤스별(?!)-스럽다!

2. 문제 부분

* 보는 법 : 숫자(쪽수)-숫자(번호): Zola Guide

13~4, 18~7: 밀의 자유론 알아두셈. 여기 저기 나오는데 최소한 기출에서 어떤 제시문과 선지가 나왔는지는 알아둘 것.

14~8: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임.

25~31: 이 부분은 윤사임. 생윤 아님. 공부해야 함. 선지만 보지 말고 제시문도 잘 확인할 것. 해설도 잘 확인할 것.

37~42: 죽음관 관련 사상가 문제들은 지식 확인용으로 풀어 볼 것. 해설도 확인할 것. 바나나 선지에 고민하지 말 것. 예를 들면 39~1-<보기>ㄴ은 바나나 선지임. 이런 것은 공부 자체가 필요없음. 바나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앞에서 추천한 강의인 [Zola 생윤 O-바나나 제거 특강]의 1강을 들어볼 것. 후회하지 않을 것임.

48~7, 48~8, 51~6, 52~7, 52~8: 자연과 윤리 문제임.

57~1, 59~1: 프롬 알아 둘 것

58~7, 60~4: 배려 윤리. 배려 윤리는 덕윤리와 엮어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음.

61~5: 가족 윤리 공부해 둡시다. 지식 없으면 곤란함. 전통 윤리 (유가) 사상과 관련이 깊음.

66~1, 66~2, 66~3, 66~4, 67~5, 68~1, 68~2, 69~3, 69~4: 직업관 사상가 중에 맹자, 순자, 플라톤, 칼뱅, 마르크스는 지식 정리해 두어야 함.

78~1, 80~1: 니부어임. 수능을 위해서라면 기본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 만약 6평이나 9평에 나온다면 이전의 기출 모두 잘 확인해 둘 것. 킬러급은 아니어도 준킬러 역할은 하는 애임(가끔 킬러가 되기도 했음).

78~84: 단원 자체가 킬러 단원임. 단, 주제별로 학습의 접근법은 차이가 있음. 여튼 맞추든 틀리든 해설도 잘 확인해 둘 것. 바나나 선지 꽤 있는 부분임.

90~95: 여기도 단원 자체가 킬러 단원임. 동양의 묵가나 법가 사상도 알아둘 것. 서양의 국가관은 개념 먼저하고 사상가로 접근하는 것이 편함. 바나나 선지 살짝 있음.

101~6, 103~4, 105~8, 126~3: 요나스의 책임 윤리임. 패스모어랑 헷갈리는 분들은 바나나 성향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와 사상가(개념)의 비교 포인트가 같은 것이 아님. 사상가(개념) 포인트를 확실히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함. 여튼 헷갈리면 사상가(개념) 공부 다시 할 것.

123~129: 동양 자연관은 1단원의 동양 윤리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음. 서양 자연관은 바나나 집합소임. [Zola 생윤 O-바나나 제거 특강]의 3강 추천함.

오늘까지 환경윤리 다 들었는데 진짜 짱짱이에요!

혹시... 선생님 오프라인에서 논술이나 국어도 하시나요?

->이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논’술적으로나 ‘국어’적으로 다른 사람 생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느꼈겠죠. 그게 저의 장점임. 단순 암기를 위한 분들에겐 단점이기도 함...ㅠㅠ

136-5: 칸트는 의무론(윤리)와 예술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둘 것. Zola는 칸트의 의무론 지식을 활용하여 예술관 정리하는 방법을 수업에서 보여드렸음.

136-8: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독해로 풀면 될 것 같음.

146-1, 149-3: 현강에서 보면 독해력 약한 수험생, 이과에서 넘어온 수험생들이 주거(거주) 관련되는 문제를 힘들어함. 마더텅 하나 사서 거주 관련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쭈욱 제시문 읽고 풀어볼 것. 그러면 나름 ‘감’이나 ‘틀’이 잡힘. 사상가 지식 공부를 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음.

147-5: 엘리아데 사상가 공부하세요! Zola는 성-속의 개념 정리 후 기본 논리 전개되는 것(4개)과 추론으로 가능한 내용 알려줬음.

160-4: 담론 윤리 공부하세요! 담론 윤리는 칸트, 공리론, 롤스 등 등과 엮여서 나올 수도 있음.

168-2, 173-7: 갈퉁의 기본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소홀히 하기 쉬움. 조심할 것.

169-5, 170-2: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독자적인 주제로 공부해 둘 것.

168~173: 해외원조는 싱어와 롤스 공부법이 다름. 싱어 공부하듯이 롤스 공부하면 롤스는 망함. 롤스 공부하듯이 싱어 공부하면 그건 시간 낭비임. Zola 강의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거임. 결론은 롤스가 공부할 것이 더 많다는 거임.

[수강후기] <https://class.orbi.kr/teacher/164/review>

(읽어보면 님들 생윤 준비에 도움되는 후기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 주제 목록(Zola 강의 기준)

대단원	주제 번호	주제
1	1-1	윤리학 구분
	1-2	동양 윤리
	1-3	서양 윤리
	1-4	도덕적 추론
	1-5	밀의 자유론
2	2-1	죽음관
	2-2	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2-3	성 · 사랑
	2-4	가족 윤리
3	3-1	직업 사상가
	3-2	직업 윤리
	3-3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3-4	정의 기본+아리스토텔레스
	3-5	분배정의
	3-6	소수자우대정책
	3-7	교정정의
	3-8	국가관
	3-9	시민불복종
4	4-1	과학기술과 윤리
	4-2	정보윤리
	4-3	환경윤리(서양의 자연관)
	4-4	환경문제와 미래세대
5	5-1	예술
	5-2	의식주
	5-3	다문화
	5-4	종교
6	6-1	소통 윤리
	6-2	국제관계론
	6-3	국제평화론
	6-4	해외원조

[참고] 필수 백지 복습 주제

[표] 최근 4개년 고난도 주제 목록(ebsi 기준, 숫자는 정답률 %)

번호	주제	24 수능	23 수능	22 수능	21 수능	평균
1	환경윤리	40	30	39	25	34
2	분배정의	52	28	26	52	40
3	서양 국가관	57	31	62		48
4	시민불복종	40	40	54	59	48
5	교정정의	76	38	56	62	58
6	해외원조	47	53	63	63	57
7	칸트 영구평화론	55	55	65		58
8	통 수	동양 윤리	21			
9		직업관			41	
10		요나스			65	
11		예술관	69		65	

백지 복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아래 글 참고

[참고] 설의에서 구르며 배운 암기의 정석 1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6706210>



열공+즐공=대박!!!